

기금운용본부 안착 위해 힘 합쳐

〈국민연금〉

‘이전·정착 지원 민관협의체’ 제4차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 열어

기금운용본부 안착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두 팔을 걷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완전한 이전과 안착을 위해 정치권과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정착 지원 민관협의체’ 제4차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었다.

민관협의체는 기금운용본부의 일괄 이전 대응 및 금융산업 전반 동향과

약·정보공유를 담당하는 이전대응분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을 담당하는 정착지원 분과 등 2개 분과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를 포함한 2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관련 동향 공유와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후 업무 조기 현지화를 위해 주거·교통·시설 인프라 조성, 금융 전문 인력 양성 등 20개 과제별 추진상황 보고와 안정적 정착 및 전

북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전해성 투자유치과장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시기가 목전에 온 상황에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이전 효과 극대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기금 관련 금융산업이 중심이 된 금융타운 조성 등 전북이 국제 금융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 차원에

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40조원 규모의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본사 인근의 1만8,700㎡(약 5,656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의 이전 사옥 신축 공사를 2016년 11월말 준공한데 이어 내년 2017년 2월 이전 계획에 맞춰 이전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대학생 902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2798만원 지원

전주시가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900여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는 2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16년도 하반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이사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대학생 902명에게 총 2798만2650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전주시의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민선 6기 대표적 청년·대학생 관련 공약사업이다.

시는 지난 10월 한 달 간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은 하반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자 1027명 중 주민정보와 대출금 자료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 902명을 최종 확정했다. 1인당 평균 이자지원액은 3만1000원이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생 125명은 대출잔액이 없거나(105명), 이자액이 0원인 경우(9명), 시외에 주민등록이 된 학생(9명) 등이다.

최종 대상자는 오는 12월 31일 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를 통해 공개되며, 시는 대상자의 2016년 하반기 이자 발생분 전액을 연말까지 한국장학재단의 개인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정과 함께 2017년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심도 높은 심의가 진행됐다.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도 주민자치연합회 간담회

주민자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연구·보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설립된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이 29일 도청을 방문하여 송하진 도지사와 지역발전 및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등의 협의를 갖고 있다.

서림공원·구룡계곡·비보림, 산림문화자산 지정

서림공원과 임정유애비·구룡계곡 구룡폭 구곡·운봉 신기마을 비보림과 축성표석

부안 서림공원 등 전북지역 3곳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산림청이 부안 서림공원과 임정유애비, 남원 구룡계곡 구룡폭 구곡, 남원 운봉 신기마을 비보림과 축성표석 등 3개소를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 산림문화자산은 전국적으로 총 8개소이며, 이 중 도에는 3곳이 포함됐다.

부안 서림공원과 임정유애비는 서림정과 비위 글씨들이 조선시대의 여류시인 이매창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

며 부안의 종류와 선비정신이 융합된 명소이자 정원 후원으로서의 역사성을 지닌 장소로 알려졌다.

남원 구룡계곡 구룡폭 구곡은 지리산 경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산천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남원 운봉 신기마을 비보림은 조선시대 영조24년(1748년)에 지세가 험한 곳에 토성을 축성하고 나무를 심어 보완한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표석을 설치한 곳이다.

특히 비보림과 축성, 금석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이례적이며, 역사성을 인정받았다.

도 관계자는 “보존가치가 높은 다양한 산림문화자산들을 적극 발굴해 명실공히 산림문화자산의 고장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산림과 관련 돼 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숲, 나무, 표석 등 유·무형의 자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세관 관련 유물 기증 받습니다”

군산세관, 호남관세전시관 전면개편 위해

군산세관은 호남관세전시관(옛 군산세관 내부) 전면개편을 위해 세관 관련 유물의 기증을 받고 있다.

호남관세전시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옛 군산세관(1908년 건축)’ 청사 내부를 2006년부터 일제 강점기 사진, 세관 사료 등을 전시해 활용하는 근대 역사 교육의 장이다.

군산세관은 2017년 상반기 옛 군산세관 및 근대 무역 관련 유물을 추가 기증받아 전시물의 충실도를 제고하고 영상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전시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전시관 내부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기증 대상 유물은 옛 군산세관(전라 지역 세관 포함) 및 근대 무역과 관련된 행정 기록물·도서·사진·영상물·물품 등 역사적 가치가 있고 전시활용이 가능한 모든 자료가 대상이다.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게 기증 증서를 증명하고 전시물 안내판에 기증자 성명을 기록하는 등 예우할 계획이다.

기증 대상 유물은 평가·심의위원

회가 최종 수집유물로 확정 등록한 후 영구 보존 관리되며 향후 연간 100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호남관세전시관에 상설 전시하고, 관세역사 연구와 근대역사교육 자료로 소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기증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소장자는 군산세관·호남관세전시관 전면 개편팀에 전화, 메일,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730-8715), 메일(proang21@customs.go.kr)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세관 및 근대 역사를 보존하고 개인의 소중한 유물이 세관 역사로 재조명되어 전송될 수 있도록 옛 군산세관 관련 유물 수집에 유물 소장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옛 군산세관은 독일인이 설계하고 벨기에에서 건축자재를 수입하여 건축된 중세 유럽 건축풍의 서울 역사, 한국은행 본점과 함께 우리나라 현존하는 3대 근대역사 건축물 중의 하나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핵융합(연), 플라즈마연구센터 복합연구동 기공식

국가핵융합연구소가 29일 군산시 군장산업단지 내 플라즈마연구센터에서 플라즈마기술 연구센터 복합연구동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군산대학교 내의 군 총장, 김양원 부시장,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 등 주요 내외빈을 비롯한 과학기술인 50여명이 참석했다.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복합연구동은 총 250여명의 국비를 투입하여 부지 2만5770㎡, 연면적 1만674㎡, 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8년 9월 완공 예정이다.

복합연구동은 기존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의 연구 공간을 대폭 확장하여, 특수시설 이용 실험실,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플라즈마 연구장치 공동 활용을 위한 공동실험실 등으로 구성된다.

핵융합연구소는 이번 복합연구동 구축을 기반으로 하여 그동안 연구공간이 한계로 실용이 어려웠던 도전적 플라즈마 융합·원천 연구를 강화하고, 국가적인 플라즈마 R&D 거점 연구센터로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핵융합연구소 김기만 소장은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복합연구동은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의 선도적인 R&D 능력을 뒷받침하게 될 종합연구동으로서, 신학연 연계 역량 강화와 국제적인 공동연구 활성화,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는 지난 2012년 11월 군장산업단지 내에 개소했으며, 독자적인 플라즈마 기술역량 확보와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공유재산 관리지역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예정 부지,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예정 부지 등 공유재산 관리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에 나섰다.

행정위원회는 29일 보훈공원 조성 및 충혼탑 건립 사업(송천동1가)과 인후3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의 예정 부지를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타당성 등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여의동) 매입 사업을 검토했다.

오평근 위원장은 “해당 사업들 모두 부지 매입 및 토지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만큼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